

이민자 가정을 위한 금식: 질문과 응답  
이민자 가정 보호를 위한 이민 개혁 촉구

1. “이민자 가정을 위한 금식” 캠페인이란 무엇인가?

"이민자 가정을 위한 금식"은 미국 내 다양한 개인과, 종교계, 이민자, 근로자 그리고 민권 단체들이 주최하여 연방의회에 하루속히 공정하고 인도적인 이민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금식의 목적은 서류미비이민자 가정이 추방으로 인해 겪고 있는 가족 이별의 고통을 알리고, 가족 이민의 중요성과, 미국 내 1 천 1 백 만 명의 서류미비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신청의 기회를 통해 미국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정을 위한 금식>은 2013년 11월 12일 워싱턴 디씨 연방 국회 의사당 앞에 텐트를 설치하며 시작되어 30일 동안 진행되었다. 다섯 명의 장기 금식자는 22일 동안 금식을 통해 이민 가정의 고통을 미국 사회에 알렸으며, 전국 곳곳 도시에서 1 만 여 명 이상의 연대 금식자들이 동참 하였다.

그 결과로 <가정을 위한 금식>은 전국적으로 확대 되어 정치계의 참여 계기를 만들었다. Barack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 오바마, Tom 페레즈 노동부장관, Jesse 제슨목사와 여성 인권 운동가 글로리아 슈타인엠도 금식자들을 방문하고 이민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했다. 하원의원 주디 추(가주-27)와 하원의원 마이크 혼다(가주-17)도 단식자들을 방문한 여러 의원들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30 여 명 이상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하루 연대 금식에 참여 하였다. 이러한 정치계의 금식 동참은 공정하고 인도적인 이민법 개정을 위한 의지를 재 표명 할 수 있었다.

아시아인 아메리칸 및 한인 커뮤니티의 단체 대표 및 교계에서도 이민자 가정을 위해 연대 금식 및 전국 기도의 날을 발표하기도 했다.

30일 동안의 캠페인 동안 전국의 주요 및 지역 언론 매개체에서 2100 이상의 보도를 해 활동 소식이 널리 알려졌다.

2. 어떻게 아태평양계 아메리칸 지역사회가 이민법에 영향을 받고 있나 ?

다른 이민자들과 같이, 아태평양계 아메리칸(AAPI)들도 잘못된 이민법으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다. 미국 내 서류미비이민자 인구 중 10%가 AAPI 이다. 또한 AAPI 서류미비 청소년 8 십 만 명이 이민 신분 때문에 자신들의 재능을 미국 사회에 기여 하는 데 큰 제약을 받고 있다. 그리고 2012년 11월 현재 가족이민 비자 적체로 가족과 헤어져 살고 있는 4 백 3 십 만 명 중 40% 이상이 아시아 국가에 살고 있다. 한 예로, 필리핀계 아메리칸 시민권자가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 23 년 이상을 기다리고도 한다. 현재 오마바 대통령 임기 동안 2 백 만 명이상의 서류미비자들이 추방 되었고, 이 중 추방된 AAPI 는 대략 25 만 명이나 된다.

### 3. 아태평양계 아메리칸 (AAPI)은 어떻게 <가정을 위한 금식> 캠페인에 참여 했나?

AAPI 는 <가정을 위한 금식> 캠페인 시작 초기부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NAKASEC, 이하 미교협) 실무진과 이사들, 한인 지역사회의 개인들은 30 일 간의 금식 캠페인 기간 동안 장기 금식 및 타 아시안 커뮤니티가 동참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했다. 전국적으로 500 명이 넘는 AAPI 개인들이 금식에 동참 했고, 전국 19 개의 주에서 이민자 가정을 위한 연대 금식과 기도회가 열렸다.

AAPI <가정을 위한 금식>의 주요 활동은 지역, 전국, 국제 언론 기관에 널리 보도 되었다.

### 4. “가정을 위한 금식” 캠페인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2014 년 1 월 27 일부터 “가정을 위한 금식” 캠페인은 제 2 단계로 전국의 100 여 개 이상의 연방 하원 지역구를 대상으로 지역 내 기자 회견, 주민 회의 그리고 연방 하원 의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이민 개혁의 의지를 재 확인하는 활동으로 이어 진다. 그리고 2 월 24 일부터 4 월 9 일 까지 두 대의 버스가, 한 대는 남쪽 그리고 다른 버스는 북쪽 지역지역으로, 서부에서부터 동부 워싱턴 디씨까지 횡단 하며, 이민자 지역 사회를 직접 방문하고 연방의원들을 만나는 전국 투어를 펼친다. 이 버스 투어에는 지난 겨울 워싱턴 디씨에서 22 일간 금식 한 미전국써비스노조의 엘리세오 메디나, 아리조나 유권자 교육 단체의 크리스찬 아빌라, 미교협의 윤대중, 그리고 전국이민개혁연맹의 루디 로페즈가 참여 한다. 또한 버스 투어 기간 동안 지역 사회 인사 및 주민 들이 직접 버스를 타며 이민 개혁에 대한 의지를 전국적으로 표명 할 것이다. 이번 전국 버스 투어의 자세한 정보는 <http://fast4families.org> 를 방문하여 얻을 수 있다.

### 5. 어떻게 AAPI 지역단체는 이번 전국 투어 캠페인에 참여 할 것인가?

미교협(NAKASEC)은 AAPI 대표들과 정치인, 지역 단체, 종교 단체, 노동자 단체들과 함께 <가족을 위한 금식 전국 버스 투어>에 참여 하여 이민 개혁을 촉구하는 아시아 아메리칸 이민자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전달 할 것이다.

우리 아시안 아메리칸 지역 사회는 이민 개혁에 있어 가족 이민을 보호 하고, 성실히 일하는 서류미비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권 취득의 기회와 가족을 생이별 시키는 추방 중단의 중요성을 상기 시킬 것이다.

## 6. 2014 년은 이민개혁의 해 인가?

이민 개혁이 실현되기 전까지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휴식이란 없다. 매일 같이 1,100 이상의 성실히 일하는 이민자들이 추방 당하고, 수 백 만 명 이상의 개인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살고 있는 도덕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정치인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민자 지역 사회의 오랜 노력의 결실로 미국인 대다수는 추방을 중단 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이민 개혁이 빨리 제정되기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미 연방하원에서 다수의 국회 의원들이 이런 미국인들의 지지에 귀 기울여 이민 개혁 지지를 밝히고 있다. 최근 공화당 지도부는 이민 개혁을 위한 원칙을 발표 했지만 연방 하원 다수당 대표는 이민 개혁 법안 표결을 계속 지연 시키고 있다. 이민 개혁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반듯이 제정 될 것 이다. 우리는 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이민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민자 가정의 어려움을 정치인들에게 계속 알리고, 정책입안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루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또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정치적 힘을 키우기 위해 유권자 등록 및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 한다.

## 7. 서류미비이민자들에게 임시 합법 신분과 시민권 취득 기회의 차이는?

정치계에서는 서류미비이민자들에게 임시적 합법 체류 신청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예전 미국의 암울했던 역사인, 아프리카 아메리칸 (흑인)을 2 등 시민으로 만들었던, 차별 정책을 다시 되풀이 되는 것이다. 1900 년 대 초 2 등 시민이 되어 토지 구입 및 시민권 취득 등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박탈 당하며 살았던 우리 아시아 아메리칸은 더욱 이 차별 정책에 반대 해야 한다.

## 8. 이민개혁은 선거의 해에 제정 될 것인가?

미국 양 당의 의원들은 이민개혁이 중요한 문제이고 반듯이 개정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들은 올해에 이민개혁법을 통과 시킬 능력과 역량이 있다.

## 9. 어떻게 AAPI 지역 사회와 단체들은 이 캠페인에 참가 할 수 있을까?

<가정을 위한 금식>에 참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 각 도시나 주 차원의 주최단체에 참여한다.
- AAPI 전국네트워크에 참여한다.
- 매 주 수요일 마다 하루 및 한 끼 금식에 참여 하고 지역 사회에 알린다.  
([www.fast4families.org](http://www.fast4families.org) 을 방문해 금식 동참에 등록한다)
- 지역 사회에서 진행 되는 행사에 참여한다.
- 이민 경험담 및 사연을 나눈다.
- 하원 다수당 의장 베이너 의원 ([202-224-3121](tel:202-224-3121))과 본인의 지역 대표 의원에게 전화한다.
- **페이스 북- 과 -투위터- (#Fast4Families #AAPIs4Families #TimeIsNow)** 등을 통해서 알린다.

더 많은 정보는 미교협의 에밀리 커셀(Emily Kessel)  
[eakessel@nakasec.org](mailto:eakessel@nakasec.org) 또는 김동윤씨의 [dkim@nakasec.org](mailto:dkim@nakasec.org) 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전화 번호 703-256-2286 / [www.nakasec.org](http://www.nakasec.org)

이민자 가정을 위한 전국 버스 투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fast4families.org](http://www.fast4families.org) or [www standwithfamilies.org](http://www.standwithfamilies.org).

\*\*\*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미교협)는 지역커뮤니티단체들이 함께 모여 코리안아메리칸의 진보적목소리를 전국적으로 전달하고 이들의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1994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미교협은 로스엔젤레스와 버지니아주의 에너데일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미교협 가입단체로는 시카고한인교육문화마당집과 로스엔젤레스민족학교가 있습니다